

국내 북스타트 운동의 분석과 활성화 방안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Strategies for the Activation of Bookstart's Movement in Korea :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윤 희 윤* · 천 재 탁**

Hee-Yoon Yoon · Jae-Tak Cheon

차 례

- | | |
|---------------------------|------------|
| 1. 서 론 | 4. 결론 및 제언 |
| 2. 조사방법과 설문지 구성 | · 참고문헌 |
| 3. 국내 북스타트 운동의 분석과 활성화 방안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장치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이 심한 영유아를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북스타트 운동의 거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공공도서관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였다.

키 워 드

북스타트 운동, 공공도서관, 영유아서비스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yhy@daegu.ac.kr)
**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사서
(Librarian, Yeongju Public Library, jetak75@dreamwiz.com)
· 논문접수일자: 2009년 1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local Bookstart program, difficulties faced by local organizations in the course of them implementing the program, and awareness on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nd ultimately propose strategies for its activa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public libraries with easier access to babies having highly limited mobility and accessibility should be the base of the program, the essay focuses on strategies of its activation for public libraries.

KEYWORDS

Bookstart's Movement, Public Library, Babies Service

1. 서론

어느 국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특히 인생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영유아에게 책과 친숙하게 하는 사회적 노력은 독서 생활화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는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책을 접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정서적 공유와 사랑을 확인한다. 그리고 영유아가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습관화하면 스스로 지식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의 독서습관은 성인이 되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독서를 경험하고 생활화하는 인격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범국가적 독서촉진 정책이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BookStart' Movement)이다. 이미 많은 국가가 북스타트

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영유아기 독서체험 및 습관화의 거점으로 간주하여 독서운동과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개정된 「도서관법」 제28조의 제3항(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과 제4항(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체 또는 장려)에서 공공도서관을 독서문화 발전의 구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공공도서관이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는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2년 12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운영조직인 '북스타트코리아'와 재정지원조직인 '북트러스트'를 조직하고, 국민일보가 홍보에 참여하면서 촉발된 국내의 북스타트 운동은 2004년 8월 중랑구를 시발로 전국 52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김영석 2004; 이수진 2004;

곽금주 2004; 이용재 2005; 김은미 2007)는 많지 않다. 그 대다수도 영유아기의 독서교육이 어린이와 부모의 독서활동과 삶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보완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부연하면 실제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에 대한 현황 및 인식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부재하여 실상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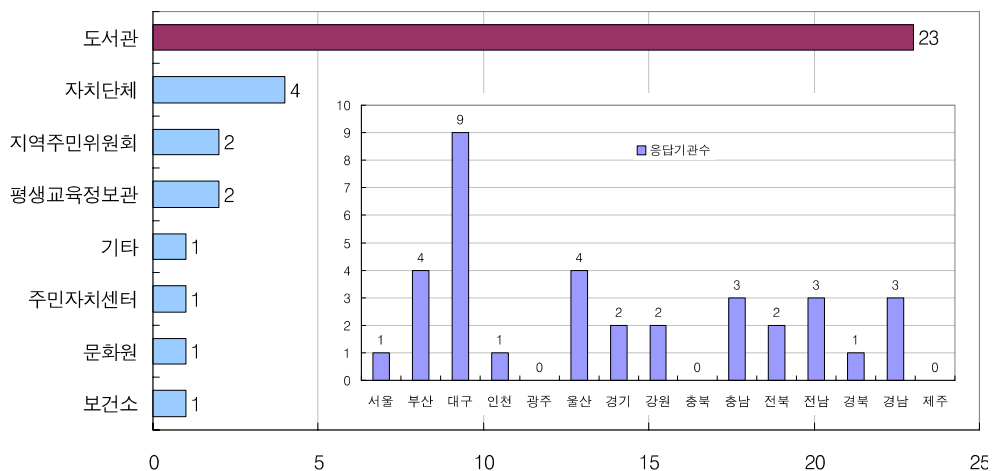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장치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영유아가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북스타트 운동의 거점을 공공도서관으로 설정하여 대안과 보완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과 설문지 구성

2.1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하는 총 52개관(도서관 28개, 보건소 7개, 자치단체 7개, 평생교육정보관 2개, 문화원 3개, 주민자치센터 2개, 지역주민위원회 2개, 기타 1개)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웹 설문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의 인사이동과 업무 과중 등으로 설문에 응하지 않은 12개관을 제외한 35개관(67.3%)이 응답하였다. 이들의 성격별 및 지역별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총 28개관 중 23개관(82.1%)이 응답하였고, 운영주체별로는 교육청 소속이 13개관(56.5%)이며, 자치단체 소속이 10개관(43.5%)이다.



<그림 1> 설문 응답기관의 성격별 및 지역별 분포

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즉,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11개 영역(인구통계적 특성, 일반적 배경, 실시 계기, 대상자, 물적자원, 인적자원, 홍보방법과 내용, 프로그램 수와 내용, 타 기관과의 연계, 추진상의 어려움, 추진과제와 제도적 보완장치)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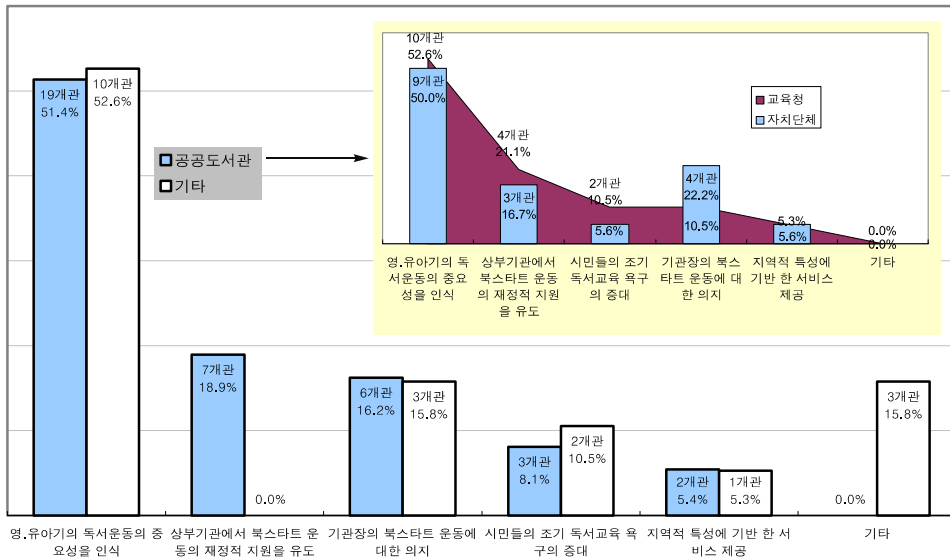
3. 국내 북스타트 운동의 분석과 활성화 방안

3.1 실시 계기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그림 2>처럼 총 56개관 가운데 ‘영유아기의 독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이 29개관(5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관장의 북스타트 운

<표 1> 설문지의 구성내용과 문항 (*복수응답)

구 분		조사내용(문항번호)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1), 연령(2), 학력(3)
일반적인 배경		발족년도(4), 운영주체(5), 대상지역(6)
실시 계기		시작하게 된 계기(7)*
대상자		대상 연령(8)*, 대상영아수(9)
물적자원	예산	연간 운영예산의 현황(10), 운영예산 지원의 주체(11)*, 운영예산에 대한 만족도(12)
	공간	별도의 공간 유무(13),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14)
인적자원	인력	전담인력 유무(15), 자원봉사자 유무(16), 담당자의 자질에 대한 인식(17)
홍보방법과 내용		홍보방법(18)*, 꾸러미의 내용물(19)*
프로그램 수와 내용		프로그램 수(20),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21)
타 기관과의 연계		타 기관과의 연계유무(22)
추진상의 어려움		추진상의 난제(23)
추진과제와 제도적 보완장치		향후 업무의 중요성(24),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25)
기 타		기타 의견(26)



〈그림 2〉 복스타트 운동의 실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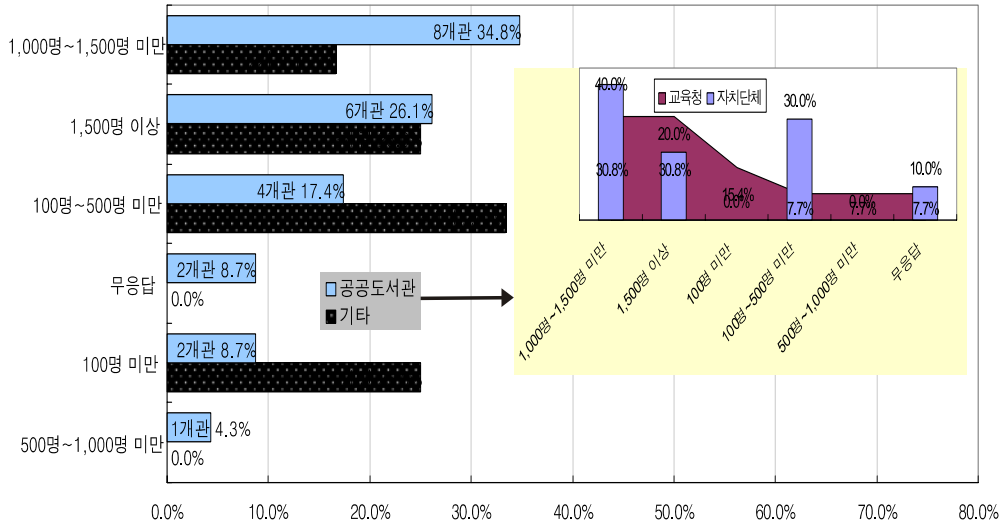
동에 대한 의지’, ‘상부기관에서 복스타트 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 ‘시민들의 조기 독서교육 욕구의 증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면 교육청 소속은 ‘영유아기의 독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이 10개관(52.6%)으로 가장 많았고, ‘상부기관에서 복스타트 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 ‘시민들의 조기 독서교육 욕구의 증대’와 ‘기관장의 복스타트 운동에 대한 의지’의 순인데 비하여 자치단체 소속은 ‘영유아기의 독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 ‘기관장의 복스타트 운동에 대한 의지’, ‘상부기관에서 복스타트 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이 복스타트 운동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영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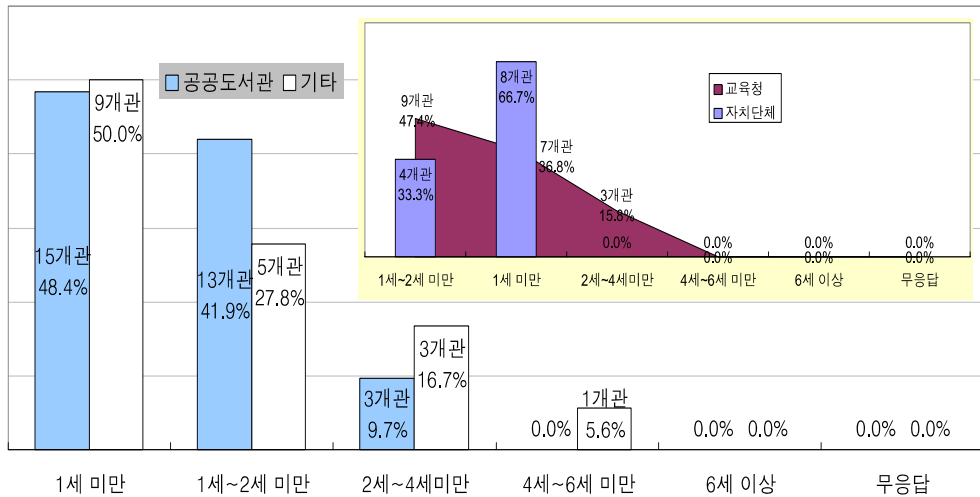
기에 독서운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동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인식도가 높더라도 기관장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미약하면 활성화와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관장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복스타트 운동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2 대상자

우선 복스타트 운동의 대상 연령은 〈그림 3〉과 같이 응답한 총 49개관 가운데 ‘1세 미만’이 24개관(4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세 미만’, ‘2~4세 미만’, ‘4~6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1~2세 미만’이 9개관(47.4%)



〈그림 3〉 북스타트 운동의 대상자 수



〈그림 4〉 북스타트 운동의 대상 연령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세 미만’이었다.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1세 미만’이 8개관(6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세~2세 미만’으로 나타나 상반되었다.

그리고 대상자 수는 〈그림 4〉와 같이 ‘1,000명~1,500명 미만’이 10개관(2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500명 이상’, 기타 ‘100명~500명 미만’, ‘100명 미만’의 순이었

다.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면 교육청 소속은 '1,000명~1,500명 미만'과 '1,500명 이상'에 각각 4개관(30.8%)이 응답한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1,000명~1,500명 미만'에 4개관(40.0%)이, '100명~500명 미만'에 3개관(30.0%)이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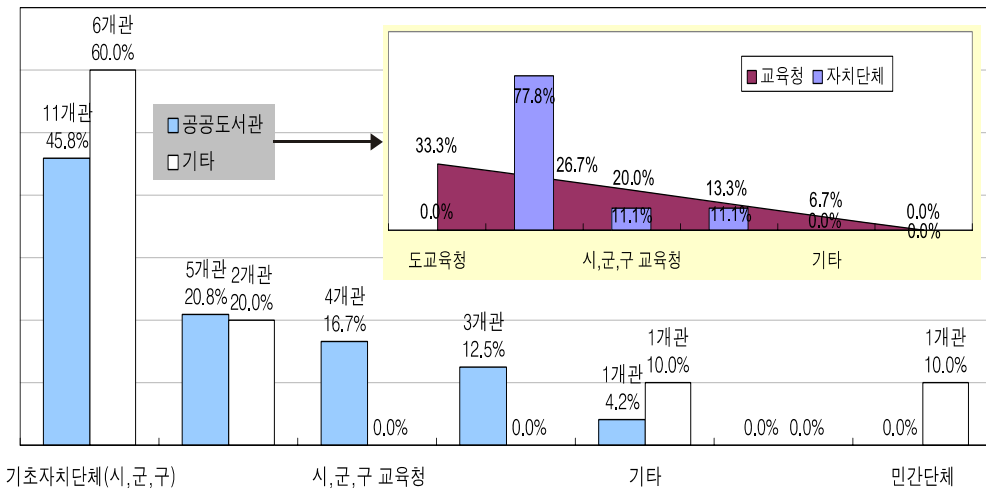
요약하면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의 대상 연령은 '2세 미만'이 가장 많은 가운데 자치단체는 '1세 미만'이, 교육청은 '1세~2세 미만'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스타트 운동은 일차적으로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경우처럼 1세 이상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상자 수도 '1,000명~1,500명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재정부담과 실효성이나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면 '100명~500명 미만'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3.3 물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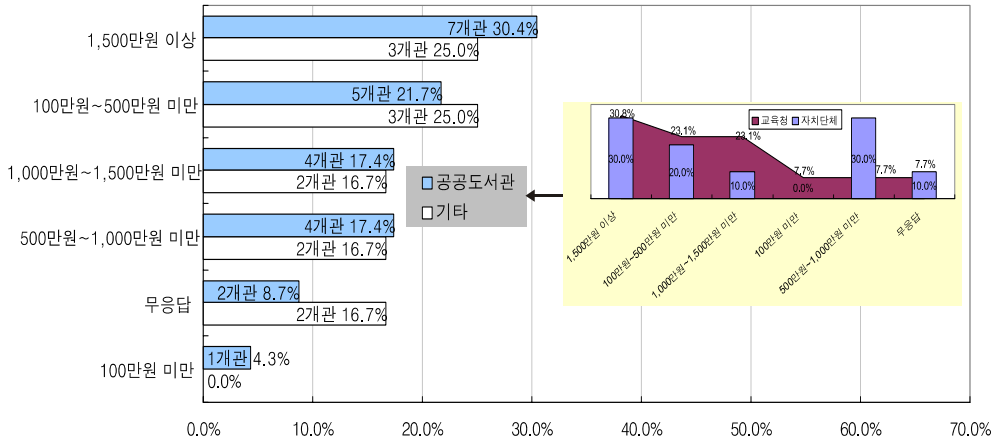
3.3.1 예산

먼저 북스타트 운동의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그림 5>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7개관(50.0%)으로 가장 많았고, '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민간단체'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도교육청'이 5개관(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광역자치단체의 순이었다. 자치단체 소속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7개관(77.8%)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나머지는 미미하다.

다음으로 연간 운영예산은 <그림 6>과 같이 '1,500만원 이상'이 10개관(2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만원~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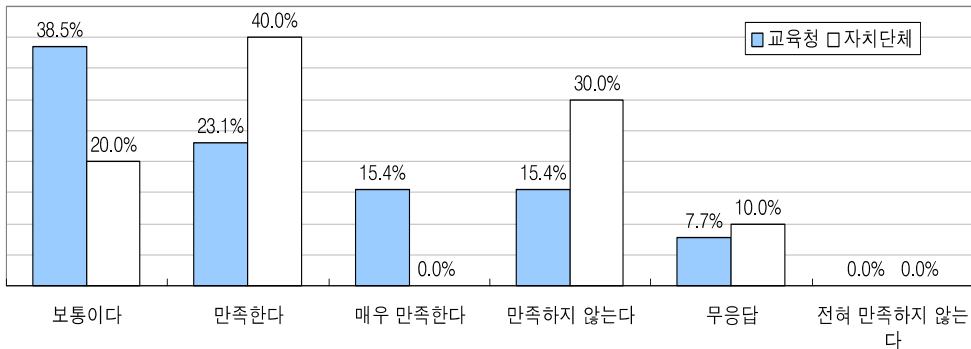
<그림 5> 북스타트 운동의 예산지원 주체



〈그림 6〉 북스타트 운동의 운영예산

미만’, 기타 ‘500만원~1,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1,5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의 순이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이 ‘1,500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500만원~1,000만원 미만’과 ‘1,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운영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7〉처럼 응답한 35개관 중에서 ‘만족한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9개관(25.7%)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여 운영주체별로 분석하면 교육청 소속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3.8%로 자치단체 소속(5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처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북스타트 운동의 예산상 문제점은 자치단체가 모든 공공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운영예산도 시행기관에 따라 최고



〈그림 7〉 북스타트 운동의 운영예산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만족도

〈표 2〉 북스타트 운동의 운영예산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별 만족도 차이 검증

구 분	교육청 소속	자치단체 소속	전체	T	p
평 균	3.42	3.11	3.29	.716	.483
표준편차	1.00	0.93	0.96		

1,000만원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운영 예산에 대한 인식도는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예산은 다음과 적시한 바와 같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첫째, 운영주체별로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예산지원 주체가 다른 이유는 소속청의 이원 화에서 기인한다. 즉 자치단체 소속은 기초자 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반면에 교육청 소속은 상부기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운영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자치단체는 북스타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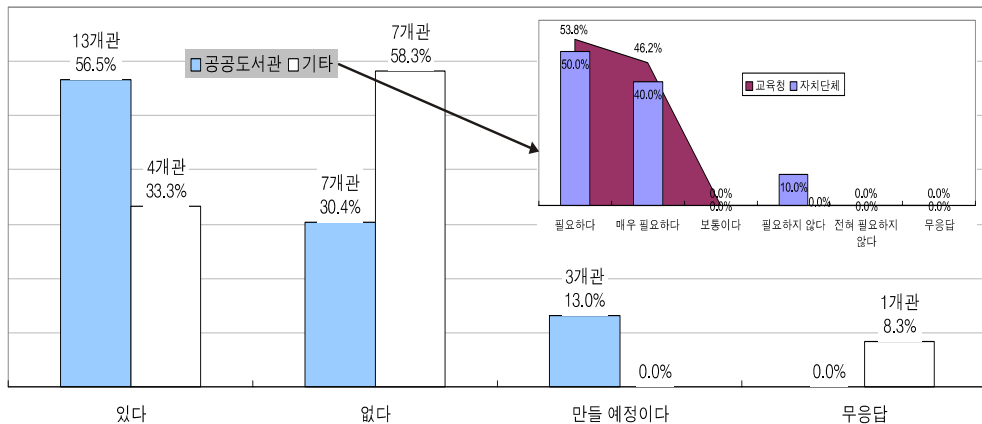
둘째,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계획은 연도별

내지 분기별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문 강사 료 등을 포함한 예산을 책정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영유아를 위하여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단체는 매년 사업예산에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해야 한다. 미국 은 공공도서관의 독립된 예산집행권이 인정되 고, 영국도 지방행정 단위의 세금과 중앙정부의 보조로 공공도서관 재정이 이루어지며, 일본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11조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3.2 공간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공간은 〈그림 8〉 처



〈그림 8〉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별도공간의 확보 여부

〈표 3〉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 검증

구 분	교육청 소속	자치단체 소속	전체	T	p
평균	4.46	4.20	4.35	.866	.396
표준편차	0.52	0.92	0.71		

럼 총 35개관 가운데 ‘있다’가 17개관(4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없다’로 14개관(40.0%)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있다’에 8개관(61.5%)이 응답한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있다’에 5개관(50.0%)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91.4%(약 32개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공공도서관도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3〉처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북스타트 운동의 공간문제는 별도공간의 경우,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없다’는 의견이 절반에 근접하였고, 응답관의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북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별도공간 및 영유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영유아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수면실과 수유실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수면실과 수유실은 물론 공공도서관 밖에 유모차

를 비치하여 영유아를 환영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공공도서관 건물에 영유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실 내에 독립형 유아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어린이실 내의 유아코너는 책상 또는 약간의 소파로 구분하거나 아예 구분하지 않아 영유아가 이용하는 데 따른 소음이 심각하다. 따라서 어린이실 유아코너의 경우, 개방된 느낌의 벽을 설치하여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동시에 초등학생의 독서를 방해하는 소음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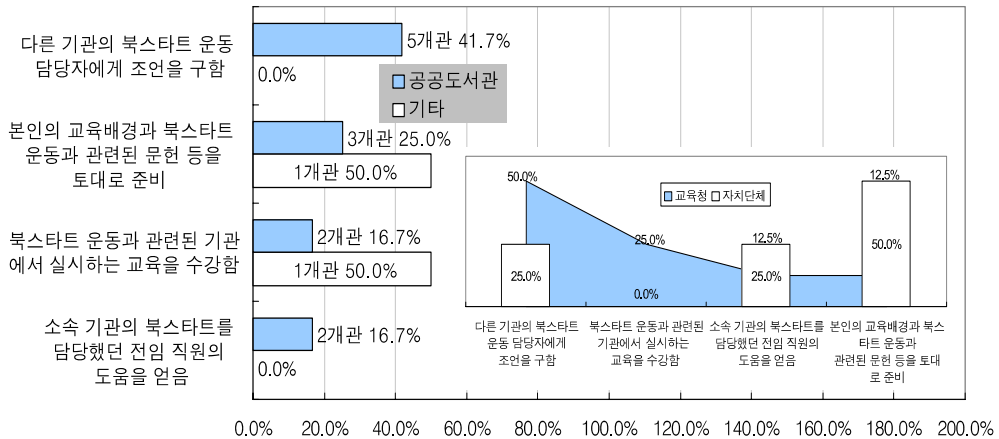
셋째, 정부 및 자치단체는 시설에 투자하여 아이들이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3.4 인적자원

먼저 북스타트 운동의 전담인력은 응답한 〈표 4〉와 같이 총 35개관 가운데 ‘없다’가 25개관(71.4%)으로 가장 많았고, ‘있다’는 10개

〈표 4〉 북스타트 운동의 전담인력 유무

구 분	공공도서관			기 타							계 (%)	
	교육청	자치 단체	소계 (%)	보건소	자치 단체	평생교육정보 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위원회	기타		소계 (%)
있다	5 (38.5)	3 (30.0)	8 (34.8)	1 (100)	0	0	1 (100)	0	0	0	2 (16.7)	10 (28.6)
없다	8 (61.5)	7 (70.0)	15 (65.2)	0	4 (100)	2 (100)	0	1 (100)	2 (100)	1 (100)	10 (83.3)	25 (71.4)
소계(%)	13 (100)	10 (100)	23 (100)	1 (100)	4 (100)	2 (100)	1 (100)	1 (100)	2 (100)	1 (100)	12 (100)	35 (100)
계(%)	23(100)			12(100)								



〈그림 9〉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제반업무의 준비과정

관(28.6%)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없다’에 8개관(61.5%)이, ‘있다’에 5개관(38.5%)이 응답하였고 자치단체 소속은 ‘없다’에 7개관(70.0%)이, ‘있다’에 3개관(30.0%)이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15개관(65.2%)에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는 ‘1명’이 8개관(22.9%)이었고, ‘2명’ 과 ‘5명 이상’이 각각 1개관(2.9%)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1

명’이 4개관(30.8%)이었으며, 자치단체 소속도 ‘1명’이 3개관(30.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반업무의 준비과정은 〈그림 9〉처럼 응답한 총 14개관 가운데 ‘다른 기관의 북스타트 운동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함’이 5개관(35.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본인의 교육배경과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문헌 등을 토대로 준비’,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함’, ‘소속 기

관의 북스타트를 담당했던 전임 직원의 도움을 얻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12개관 중에서 교육청 소속은 '다른 기관의 북스타트 운동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함'에 4개관(50.0%)이,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함'에 2개관(25.0%)이 응답하였다.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본인의 교육배경과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문헌 등을 토대로 준비'에 2개관(50.0%)이, '소속 기관의 북스타트를 담당했던 전임 직원의 도움을 얻음'과 '다른 기관의 북스타트 운동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함'에 각각 1개관(25.0%)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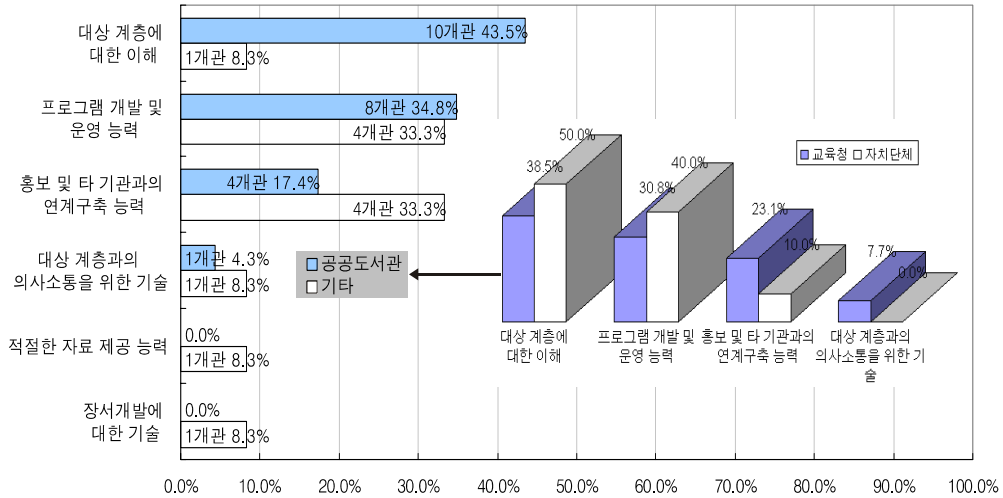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표 5>와 같이 총 35개관 가운데 '있다'가 23개관(65.7%)인 반면에 '없다'는 12개관(34.3%)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있다'에 7개관(53.8%)이, '없다'에 6개관(46.2%)이, 자치단체 소속은 '있다'에 7개관(70.0%)이, '없다'에 3개관(30.0%)이 응답하였다.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

우는 '5명~10명 미만'이 9개관(2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명 미만'과 '10명~15명 미만', '20명 이상', '15명~20명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의 경우 '5명~10명 미만'이 4개관(30.8%), '10명~15명 미만'이 3개관(23.1%)인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5명 미만'이 3개관(30.0%), '5명~10명 미만'이 2개관(20.0%)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이 절반을 상회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자질은 <그림 10>처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이 12개관(3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상 계층에 대한 이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연계 구축 능력', '대상 계층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장서개발에 대한 기술'과 '적절한 자료 제공 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대상 계층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홍보 및 타 기관과의 연계구축 능력'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표 5> 북스타트 운동의 자원봉사자 유무

구 분	공공도서관			기 타								계(%)
	교육청	자치단체	소계(%)	보건소	자치단체	평생교육정보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위원회	기타	소계(%)	
있다	7 (53.8)	7 (70.0)	14 (60.9)	1 (100)	4 (100)	2 (100)	0	1 (100)	1 (50.0)	0	9 (75.0)	23 (65.7)
없다	6 (46.2)	3 (30.0)	9 (39.1)	0	0	0	1 (100)	0	1 (50.0)	1 (100)	3 (25.0)	12 (34.3)
소계(%)	13 (100)	10 (100)	23 (100)	1 (100)	4 (100)	2 (100)	1 (100)	1 (100)	2 (100)	1 (100)	12 (100)	35 (100)
계(%)	23(100)			12(100)								



〈그림 10〉 북스타트 운동 담당자의 자질

에 자치단체 소속은 ‘대상 계층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홍보 및 타 기관과의 연계구축 능력’의 순이었다.

요컨대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인력문제는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전담인력이 없거나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원봉사자도 없거나 5명 미만인 도서관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 확보가 시급하다. 그리고 제반업무의 준비는 다른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본인의 교육배경과 관련문헌 등을 토대로 준비할 정도로 체계성이 약하다. 따라서 인력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담사서를 확보해야 한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1세 미만의 영유아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독서형태와 발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

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담당자들은 대상층에 대한 지식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영유아에 대한 배려는 제한적이다. 다른 선진국의 직무사례로 벤치마킹하여 국내 북스타트 담당사서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윤희운 2007a, 89-92). 그런 다음에 전담사서를 별도로 배치해야 과중한 업무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한다. 사서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면 지역단위로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육아경험과 독서경험이 풍부한 여성들을 독서시범, 양서선정, 육아상담, 북스타트 운동취지의 설명, 꾸러미 전달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도서관은 북스타트코리아가 제안한 ‘10

~2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인력을 모집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원봉사 홍보계획을 마련하며, 자원봉사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체계적으로 모집을 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 시상제도와 마일리지를 도입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북스타트자원봉사단'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서의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담당자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 노력과 함께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서모임을 적극 활성화하여 독서와 토론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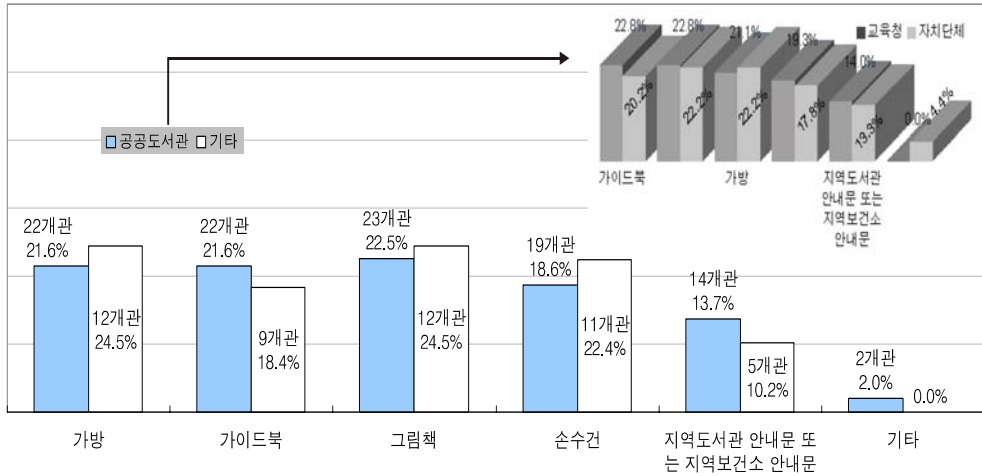
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북스타트 담당자의 직무교육 강화, 대학의 북스타트 관련 교과목 개설 및 교육, 국가도서관의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5 홍보방법과 내용

북스타트 운동의 홍보방법은 <표 6>처럼 복수 응답한 총 93개관 가운데 '홈페이지'가 29개관(3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팸플릿', '언론매체', '연계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홈페이지'가 11개관(2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팸플릿', '연계기관'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자치단체 소속에서도 동일

<표 6> 북스타트 운동의 홍보방법(* 복수응답)

구 분	공공도서관			기 타							계 * (%)	
	교육청	자치단체	소계 (%)	보건소	자치단체	평생교육정보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위원회	기타		소계 (%)
홈페이지	11 (28.9)	9 (29.0)	20 (29.0)	1 (33.3)	4 (44.4)	2 (40.0)	0	1 (50.0)	1 (33.3)	0	9 (37.5)	29 (31.2)
팸플릿	10 (26.3)	9 (29.0)	19 (27.5)	1 (33.3)	1 (11.1)	2 (40.0)	0	0	1 (33.3)	0	5 (20.8)	24 (25.8)
언론매체	8 (21.1)	6 (19.4)	14 (20.3)	1 (33.3)	3 (33.3)	1 (20.0)	0	0	0	0	5 (20.8)	19 (20.4)
연계기관	9 (23.7)	6 (19.4)	15 (21.7)	0	1 (11.1)	0	1 (100)	0	1 (33.3)	0	3 (12.5)	18 (19.4)
기타	0	1 (3.2)	1 (1.4)	0	0	0	0	1 (50.0)	0	1 (100)	2 (8.3)	3 (3.2)
소계 (%)	38 (100)	31 (100)	69 (100)	3 (100)	9 (100)	5 (100)	1 (100)	2 (100)	3 (100)	1 (100)	24 (100)	93 (100)
계(%)	69(100)			24(100)								



〈그림 11〉 복스타트 꾸러미의 내용물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꾸러미의 내용물은 〈그림 11〉처럼 복수 응답한 총 151개관 가운데 ‘그림책’이 35개관(2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방’, ‘가이드북’, ‘손수건’, ‘지역도서관(보건소) 안내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 한정된 경우, 교육청 소속은 ‘그림책’과 ‘가이드북’, ‘가방’, ‘손수건’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그림책’과 ‘가방’, ‘가이드북’, ‘손수건’의 순으로 높았다.

이상에서 분석한 복스타트 운동의 홍보방법은 홈페이지 > 팸플릿 > 언론매체 > 연계기관 > 기타의 순으로 높았지만 일부의 관심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전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질 여유가 없는 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참여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머니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하여 지역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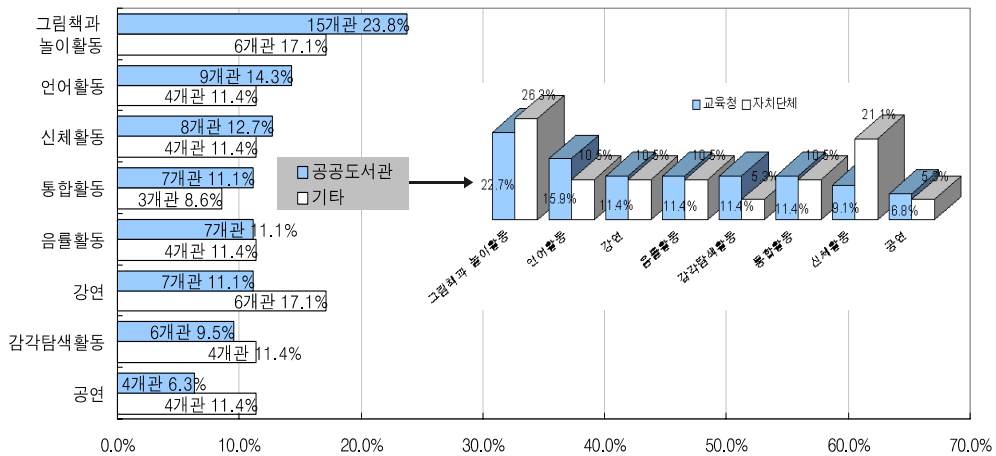
둘째, 자치단체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나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홍보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3.6 프로그램 수와 내용

먼저 복스타트 프로그램의 수는 〈표 7〉처럼 응답한 총 35개관 가운데 ‘없다’가 9개관(25.7%)이었고, 그 다음이 ‘3개’, ‘2개’, ‘1개’, ‘4개’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2개’와 ‘3개’에 각각 5개관(38.5%)과 4개관(30.8%)이 응답한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3개’와 ‘4개’에 각각 2개관

〈표 7〉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

구 분	공공도서관			기 타							계 (%)	
	교육청	자치 단체	소계 (%)	보건소	자치 단체	평생교육 정보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 위원회	기타		소계 (%)
1개	1 (7.7)	1 (10.0)	2 (8.7)	1 (100)	0	0	1 (100)	1 (100)	1 (50.0)	0	4 (33.3)	6 (17.1)
2개	5 (38.5)	0	5 (21.7)	0	1 (25.0)	1 (50.0)	0	0	0	0	2 (16.7)	7 (20.9)
3개	4 (30.8)	2 (20.0)	6 (26.1)	0	0	1 (50.0)	0	0	1 (50.0)	0	2 (16.7)	8 (22.9)
4개	1 (7.7)	2 (20.0)	3 (13.0)	0	2 (50.0)	0	0	0	0	0	2 (16.7)	5 (14.3)
없다	2 (15.4)	5 (50.0)	7 (30.4)	0	1 (25.0)	0	0	0	0	1 (100)	2 (16.7)	9 (25.7)
소계(%)	13 (100)	10 (100)	23 (100)	1 (100)	4 (100)	2 (100)	1 (100)	1 (100)	2 (100)	1 (100)	12 (100)	35 (100)
계(%)	23(100)			12(100)								



〈그림 12〉 북스타트 운동을 통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20.0%)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림 12〉와 같이 복수 응답한 총 98개관 가운데 ‘그림책과 놀이활동’이 21개관(21.4%)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강연’과 ‘언어활동’, ‘신체활동’, ‘음률활동’, ‘감각탐색활동’과 ‘통합활동’, ‘공연’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복수 응답한 63개관 중 교육청 소속은 ‘그

립책과 놀이활동’, ‘언어활동’, ‘강연’, ‘음률활동’, ‘감각탐색활동’, ‘통합활동’의 순이었고, 자치단체 소속은 ‘그림책과 놀이활동’, ‘신체활동’, ‘강연’, ‘언어활동’, ‘음률활동’, ‘통합활동’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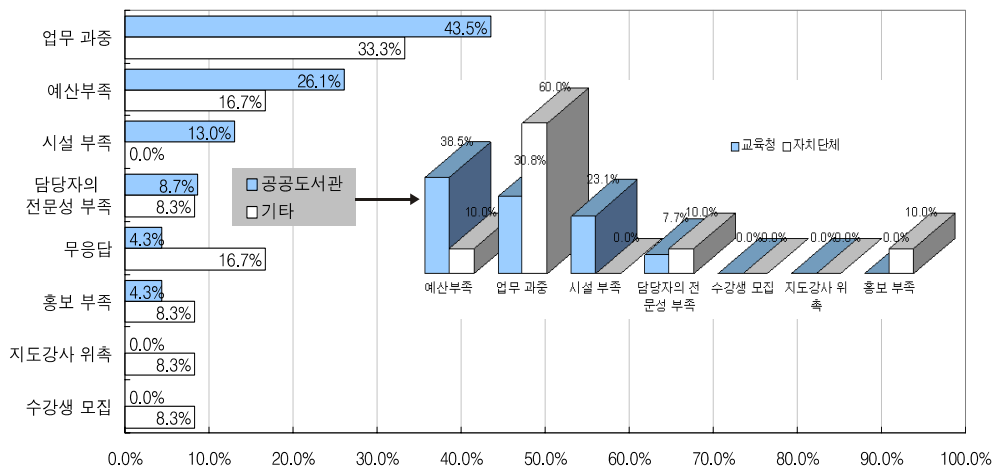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제공상의 어려운 점은 <그림 13>처럼 응답한 총 35개관 가운데 ‘업무 과중’이 14개관(4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산 부족’, ‘시설 부족’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홍보 부족’, ‘수강생 모집’과 ‘지도강사 위촉’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응답한 23개관 중에서 교육청 소속은 ‘예산 부족’이 5개관(3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업무 과중’, ‘시설 부족’의 순이었으며, 자치단체 소속은 ‘업무 과중’에 절반 이상인 6개관(60.0%)이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제공상의 난제는 ‘업무 과중’, ‘예산 부족’, ‘시설 부

족’, ‘지도강사 위촉’,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홍보 부족’, ‘수강생 모집’의 순이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북스타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프로그램 담당사서는 1명이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수행할 정도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북스타트 담당사서의 직무를 제시하고 전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국은 생후 1년 미만, 18~34개월, 3~4세 등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영아기부터 취학기까지의 발달을 돕고 있다. 또한 0~5세용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북스타트 운동을 도입한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1세 이후의 프로그램은 없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들



〈그림 13〉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상의 어려운 점

개발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영유아용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제공해야 한다.

셋째, 북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제고시키려면 이벤트성 내지 일회성 활동을 지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7 타 기관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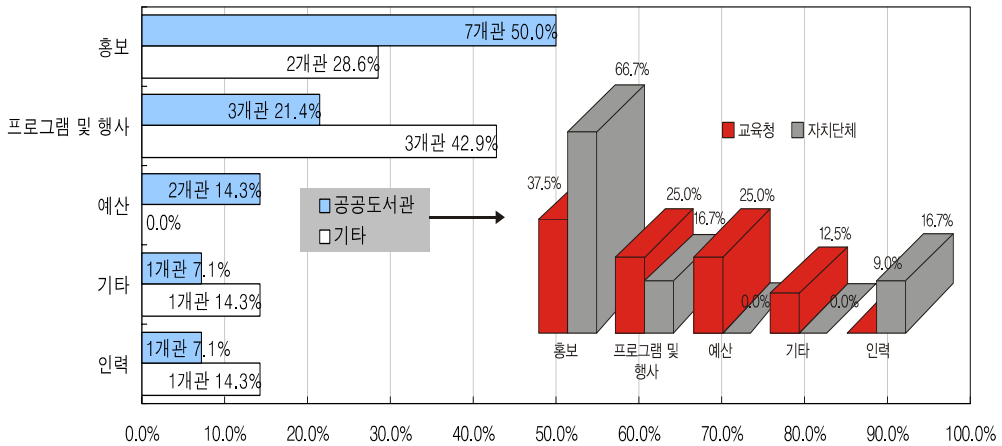
북스타트 운동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유무는 <표 8>과 같이 응답한 총 35개관 가운데 '없다'가 19개관(54.3%)이고, '있다'는 15개관(42.9%)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없다'에 7개관(53.8%), '있다'에 6개관(46.2%)이 응답하였고, 자치단체 소속은 '없다'에 6개관(60.0%), '있다'에 4개관(40.0%)이 응답하였다.

또한 연계하는 경우, 대상기관은 총 23개관 가운데 '보건소'가 7개관(3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도서관',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주민위원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57.2%가 '보건소' 및 '도서관'과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연계내용은 <그림 14>와 같이 응답한 총 21개관 가운데 '홍보'가 9개관(4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 및 행사', '인력', '예산', '기타'의 순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14개관 중에서 교육청 소속은 '홍보'를 3개관(37.5%)이, '프로그램 및 행사'와 '예산'을 각각 2개관(25.0%)이 연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소속도 '홍보'에 4개관(66.7%)이 응답함으로써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절반이

<표 8>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유무

구 분	공공도서관			기 타								계 (%)
	교육청	자치단체	소계 (%)	보건소	자치단체	평생교육정보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위원회	기타	소계 (%)	
있다	6 (46.2)	4 (40.0)	10 (43.5)	1 (100)	2 (50.0)	0	1 (100)	0	1 (50.0)	0	5 (41.7)	15 (42.9)
없다	7 (53.8)	6 (60.0)	13 (56.5)	0	2 (50.0)	1 (50.0)	0	1 (100)	1 (50.0)	1 (100)	6 (50.0)	19 (54.3)
무응답	0	0	0	0	0	1 (50.0)	0	0	0	0	1 (8.3)	1 (2.9)
소계 (%)	13 (100)	10 (100)	23 (100)	1 (100)	4 (100)	2 (100)	1 (100)	1 (100)	2 (100)	1 (100)	12 (100)	35 (100)
계(%)	23(100)			12(100)								



〈그림 14〉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내용

‘홍보’를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문제는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절반 이상이 연계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다. 연계하는 경우도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과반수 이상이 ‘보건소’ 및 ‘도서관’과 연계하고 있어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연계내용은 ‘홍보’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첫째,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는 영유아의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다음 단계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문화공간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유아와 지역주민을 유인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열람실을 설치하여 ‘보건소의 북스타트’가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로

연결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둘째, 지자체, 보건소와 공공도서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유아지원센터 개설, 각종 도서관의 증설과 이용촉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도서관과 서점의 그림책 읽어주기나 독서토론회, 지역 고유의 문화축제 개최 등과 같은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지역 북스타트위원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영유아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소식지나 행사 안내문을 배포하며, 모자가 함께하는 구연동화나 영화관람, 연극공연 등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 읽어주는 아빠모임이나, 육아고민 등을 공유하는 엄마모임을 주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책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넷째, 도서관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의 차이를 불문하고 북스타트 운동을 통하여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함으로써 대화의 단절과 네트워크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관리수준이나 이용률이 기대수준 이하인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원 등과의 협조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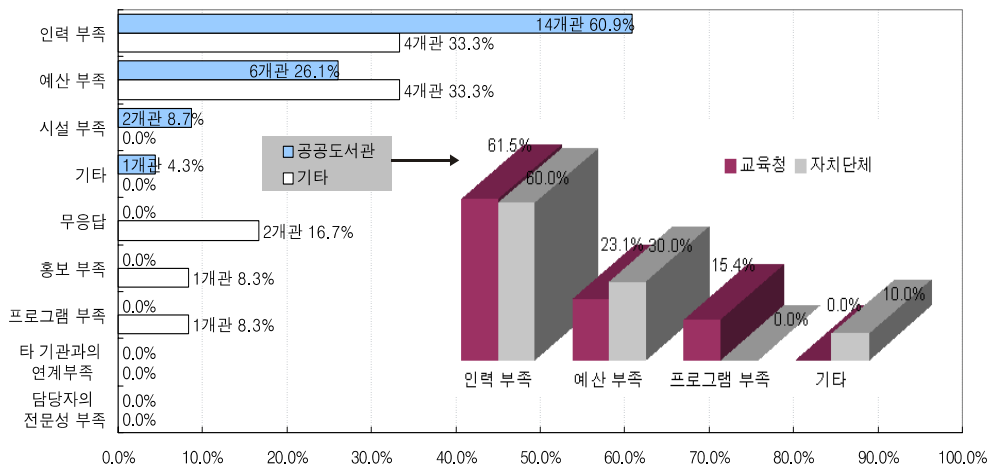
3.8 추진상의 어려움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할 때의 어려움은 <그림 15>와 같이 응답한 총 35명 가운데 '인력 부족'이 18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산 부족', '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족'과 '홍보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컨대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점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력 및 예산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은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난제가 아니다. 다만 파행과 왜곡을 차단하려면 담당자의 직무교육, 선진국 연수, 자기개발을 위한 학위과정 이수 등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부족 문제는 전문성 부족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북스타트 운동본부와 도서관 관계가 협력하여 선진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북스타트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책과 친숙하게 하여 독서 및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



<그림 15> 북스타트 운동의 추진상 어려움

고,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으므로 단순한 운동차원을 넘어 자료중심의 독서습관 및 도서관 이용능력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홍보 부족의 문제는 공공도서관이 북스타트 운동의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을 간추려 보건소, 마스크,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스타트 운동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집중 홍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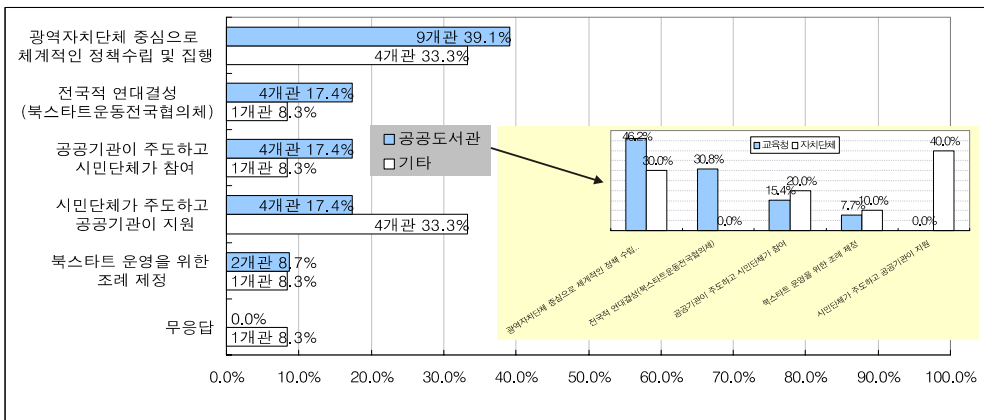
넷째, 인력 부족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적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현재 사서직원 1인당 봉사부담이 선진국의 2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휴일 개관시간의 확대, 주중 야간의 개관시간 연장 등으로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위원회 및 주무부처는 조속히 연차별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와 협

의하여 인력확충에 배전을 노력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윤희운 2007b,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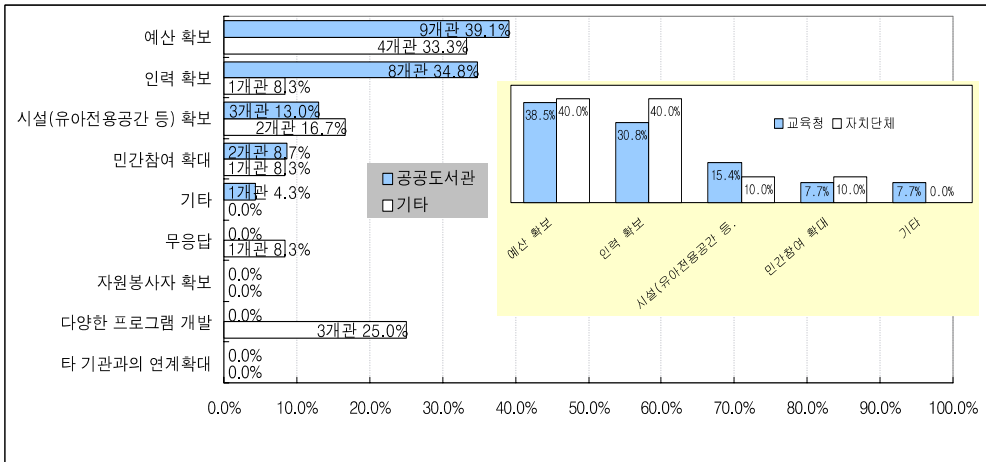
3.9 추진과제와 제도적 보완장치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할 때 중시해야 할 업무는 <그림 16>처럼 응답한 총 35명 가운데 '예산 확보'가 13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력 확보', '시설(유아 전용공간 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참여 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예산 확보'와 '인력 확보'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자치단체 소속은 '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의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장치는 <그림 17>처럼 응답한 총 35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13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북스타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그림 17〉 북스타트 추진시 중시해야 할 업무

시민단체가 참여'와 '전국적 연대결성(북스타트 운동전국협의체)', '북스타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전국적 연대결성(북스타트운동전국협의체)'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치단체 소속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가장 중시하며 그 다음이 '시설(유아 전용공간 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 확보', '민간참여 확대', '자원봉사자 확보', '타 기관과의 연계확대'순이었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인식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공공도서관이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참여', '시

민단체가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 '전국적 연대결성(북스타트운동전국협의체)', '북스타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장치는 다음과 같이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첫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5호(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호(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와 7호(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국가정책을 강화하고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추진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스타트 운동의 효과를 측정할 여러 연구결과에서 이를 경험한 어린이의 인지능력, 언어능력, 읽기능

력, 학습능력, 집중력, 사회성, 정서발달 등이 경험하지 못한 어린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어른에게도 영향을 주어 '책 읽는 가정'을 가꾸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이경근 2008, 28-33; 이수진 2004, 12-13).

둘째, 광역시도는 인식도 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기초를 반영하는 북스타트 운동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조례에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을 핵심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치단체가 북스타트 운동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때는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연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 차원의 북스타트 운동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보건소, 도서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북스타트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선진국 사례가 시사하듯이 인력과 전문성, 예산과 공간, 자료선정, 프로그램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면 공공도서관이 주도하고 북스타트위원회가 지원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매스컴,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과 더불어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그 중심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평생학습축제'처럼 가칭 '북스타트전국연대'를 결성하여 대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의 나비효과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확대·지속되어 독서 및 도서관 이용을 삶의 중심부에 위치시키기 위한 사회전체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선진국에 비하여 후발주자인 국내의 북스타트 운동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일선의 공공도서관이 구심체로 작동할 수밖에 없지만, 활성화 단계를 거쳐 문맹퇴치, 정보격차, 평생학습을 위한 자발적 사회문화 운동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기업체, 사회사업단체, 개인 등에 기부를 독려하여 북스타트 운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는 국내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추진과정의 난제와 제도적 보완장치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다음에 공공도서관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예산은 모든 자치단체가 운영주체를 분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사업에 북스타트 예산을 반영하되, 영유아를 위한 예산을

별로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공간문제의 경우, 정부 및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북스타트용 사무공간 및 영유아 이용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물에 영유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린이실 내에 구획한 유아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인력문제는 반드시 전담사서를 확보·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위원회 및 주무부처는 조속히 연차별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인력확충에 배전의 노력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북스타트 담당자의 직무교육 강화, 대학의 관련교육 강화, 국가차원의 교육연수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공공도서관은 '10~2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북스타트 운동의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을 간추려 보건소, 매스컴, 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저소득층 영유아를 찾아가는 어린이집 프로그램도 검토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북스타트 운동의 홍보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

되어야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북스타트 운동의 효과를 제고시키려면 이벤트성 내지 일회성 활동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다만 북스타트 운동은 영유아의 독서를 습관화하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하며, 정보해득력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자료중심의 독서습관 및 도서관 이용능력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의 경우, 보건소가 영유아를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그 다음 단계로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 공간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북스타트 운동을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기획·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 부재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국가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정책을 강화하여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반영·추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광역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북스타트 운동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북스타트 운동은 공공도서관이 주도하고 북스타트위원회가 지원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과 더불어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그 중심에 공공도서관을 위

치시키되 가칭 ‘북스타트전국연대’를 결성하여 대회, 세미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내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보건의료는 영유아를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즐거운 독서재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책과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 독서 생활화와 도서관 중심의 지식문화 선진국을 기대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3. 『한국의 북스타트 시범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김영석. 2004.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 셰필드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1-313.
- 김은미. 2007. 『북스타트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희운. 2007a.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연구』. 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윤희운. 2007b.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31-54.
- 이경근. 2008. 『북스타트 운동의 이해』. 서울 : 북스타트코리아.
- 이수진. 2004.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용재. 2005. 부산 북스타트 운동의 전개양상과 발전 방안 : 국내의 도서관 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과 관련하여. 『한국민족문화』, 25: 429-460.
- 日本圖書館協會兒童少年委員會. 2004. 『公立圖書館 兒童サービス 實態 調査報告』.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Eyre, Gayner. 2003. “Back to Basics: The Role of Reading in Preparing Young Peopl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Reference Services Review*, 31(3): 219-226.
- Hood, David. 2005. “Branding in the United Kingdom Public Library Service.” *New Library World*, 106(1): 16-28.
- Kirk, Wendy. 2004. “Family Learning Services in UK Public Libraries: An Investigation of Current Provision and Ongoing Development.” *New Library World*, 105(5): 176-183.
- Moore, M., Wade, E. 2003. “Bookstart: a Qualitative Evaluation.” *Educational Review*, 55(1): 5-7.
- Reynolds, K. 2001. *Evaluation of The Bookstart Programme*. London: Book-trust.
- Wade, E., Moore, M. 1998. “An Early Start

with Books: Literacy and Mathematical Evidence from A Longi-

tudinal Study.” *Educational Review*,
50(2): 135-145.